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니혼생명, 토요일 선택 근무제로 불황 타개

□ 일본의 메이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日本生命)은 선택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토요 근무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전국 107개 지점 1,589개 영업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 5만명의 니혼생명의 설계사(‘생명보험 레이디’로 불림)들은 올해 9월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토요일에도 출근해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관리직원 역시 교대 출근으로 이들을 관리함.
- 아울러 설계사들이 과다 근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요일 근무일 수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니혼생명은 이번 조치 이전부터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토요 근무제를 실시해 토요일을 고객과 전화 접촉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본 결과, 실제 고객 방문의 확률이 높아져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 사실에 주목하고 토요 근무제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됨.

□ 니혼생명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험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영업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성과 결과에 따라 향후 토요 근무제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직장들이 많아지면서 방문 판매를 주로 하는 설계사들의 고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평일 방문 판매가 비효율적이 되면서 토요일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생명보험의 주력 상품인 개인보험 신규보험료가 최근 10년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보험시장 축소가 계속되고 있고, 인터넷 및 점포형 판매와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기존 설계사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업계 수위인 이번 니혼생명의 조치가 향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토요 근무제가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Bloomberg · FujiSankei Business I, 7/15)